

# 군산시민축구단 유소년 팀 창단 준비 박차 농업·농촌의 소중함 배운다

### 지도자선임·선수선발 절차 거쳐 12월 중순 창단 예정

군산지역 유소년 팀(U-15)의 창단을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한데 모여 지난 13일 군산시민축구단의 창립회의를 겸한 이사회를 열고 유소년 팀 창단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군산시민축구단은 이날 창립회의를 통해 정관을 확정하는 한편 U-15 팀 창단을 지원하기 위해 체육인 사업가, 전문가 등 각계를 대표하는 12명의 이사를 우선적으로 선임했으며, 이어 넓은 사회봉사자 어려운 이웃들을 폭넓게 후원해 온 김민재 군산장례식장 대표를 구단주로 선출하고 김영현 회계사와 신홍섭 변호사를 감사로 선출하는 등 공신력 있는 진용을 갖추었다.

또한 유소년팀 육성을 위해서는 시민들의 후원이 필요하다는 방침 아래 재정적 후원을 할 수 있는 이사를 50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해 군산제일중 축구부의 해체로

지역 축구인재가 의지로 유출되고 금석배 축구대회의 영구 유치도시인 군산에 관내 출전팀이 없어 시의 위상이 떨어진다라는 체육계의 문제 제기에 따라 그동안의 군산시는 시 차원에서 다양한 방향으로 유소년 팀 창단을 모색해 왔다.

이에 시에서는 유소년 팀 위주의 군산시민축구단이 클럽축구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 등을 지원하는 한편 시민구단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시민구단은 곧바로 지도자 선발 공고를 내고 11월 21일까지 지도자 선임을 마친 후 12월 첫째 주엔 선수 선발을 위한 공개 테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어 학부모들과의 연찬회 등 유소년 팀 운영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는 등의 절차가 마무리 되는대로 12월 하순께 군산시민축구단 창단식을 개최하기로 했다.



군산지역 유소년 팀(U-15)의 창단을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한데 모여 지난 13일 군산시민축구단의 창립회의를 겸한 이사회를 열고 유소년 팀 창단을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한편 지도자 선발 채용공고는 군산 스포츠클럽 및 군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체육진흥과(☎ 454-329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근기자

### 익산시농업기술센터, 스쿨팜 지원사업 김장체험 진행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이리·중앙초 등 12개 학교 5학년 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김장체험을 진행하고 있다.

그동안 익산시농업기술센터는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익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스쿨팜 지원사업을 추진해 온 가운데 이번 김장체험은 지난 8월 학생들이 직접 심은 배추와 무를 이용해 이뤄졌다.

이번 행사 진행을 맡은 '갯도까지 김치체험장' 김치명인 신덕순 대표는 체험에 앞서 학생들에게 전통음식의 맛과 먹거리의 소중함, 특히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식품인 김치의 우수성을 교육한다.

이후 학생들은 미리 수확한 배추와 무에 김치명인이 준비한 양념 등을 직접 바른 채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김치담그기 체험을 한다.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고 김치의 우수성과 농작물의 소중함을 배우게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스쿨팜 사업

은 아이들이 텃밭을 가꾸며 스트레스를 푸는 동시에 직접 작물을 키우며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농협중앙회 익산시지부 관계자는 "아이들이 직접 기른 배추를 이용해 김치를 담가 맛있게 해 농업의 가치와 식생활의 소중함을 일깨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했다.

스쿨팜(school fam)은 학교 내에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학생들에게 농업에 대한 체험과 지식을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인식 시키며 아울러 학교 구성원들과의 협동과 건강간 상호작용을 목적으로 조성하는 공동체 정원의 한 형태다.

익산시는 2013년에 1개 초등학교에 스쿨팜 사업을 시작으로 스쿨팜 조성·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014년 4개소, 2015년에는 8개소, 2017년에는 12개 초등학교로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 원광대 건축공학과 학생들

## 한국건축시공학회 건축시공기술대전 우수상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청의공과대학 건축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정현(반준모(2학년), 정수빈(3학년) 학생이 (사)한국건축시공학회에서 개최한 2017년 제12회 건축시공기술대전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건축시공기술대전은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한국여양대에서 열린 (사)한국건축시공학회 2017 추계학술발표대회와 함께 진행됐으며, 국내·외 대학과 연구기관, 산업계 등에서 약 200여 편의 학술논문 및 포스터 발표가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학생들이 최제진(건축공과과장) 교수의 지도로 제출한 '인공경량골재 혼합비에 따른 경량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압축강도에 관한 연구' 논문은 최근 국내·외적으로 시공시계가 중

가하고 있는 초고층구조물의 요소기술로 부각되고 있는 경량콘크리트에 대한 특성을 발표해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원광대 건축공학과는 2017 춘계학술발표대회에서도 우수학술상을 받았으며, '바르퀴즈 후즈 후 인더 월드' 및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 인명사전'에 등재된 최제진 지도교수는 '건설순환자원 인재지도자 상'을 받기도 했다.

한편 (사)한국건축시공학회는 국내 건축 산업 발전을 위한 학술활동, 산학연 기술 개발 산업현장 시공 전문가 육성 국제 기술 및 정보 교류 등을 목적으로 2001년 설립됐으며, 45,0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 '금강 길목에서 만난 자연, 그리고 사람'

## 서천-군산 금강철새여행

### 내일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서 개막

국내 3대 철새도래지인 금강호에서 2017 서천-군산 금강철새여행'이 '금강 길목에서 만난 자연, 그리고 사람'이라는 슬로건으로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금강철새조망대, 금강습지생태공원 및 서천조류생태전시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군산시와 서천군이 세 번째로 공동 개최하는 이번행사는 17일 서천군 조류생태전시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군산 및 서천의 금강 일원에서 진행될 스텝프투어, 철새 탐조투어, 철새 그림그리기 대회를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관람객들이 군산 및 서천의 행사장을 모두 둘러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군산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한 달여간 프로그램 공모전을 실시하여 군산대, 군장대, 호원대 등 관내 대학교와 지역업체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주민이 행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행사 추진을 위해 노력

해왔다.

또한 고흥술 前원예조항집이 30여년간 수집한 200여점의 수석을 무상 기증하여 철새조망대 2층 전시실을 새단장했으며, 군산고등학교 교장으로 정년퇴임한 원창희 화백은 '금강호를 비상하는 철새 군무(유화 120호)'라는 작품을 기증하는 등 새로운 볼거리가 마련되었다.

시 관계자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금강호에서 아름다운 철새들의 향연을 감상하고 모두가 멋진 추억을 담아갈 수 있는 금강철새여행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철새조망대에 전시된 생활표본 중 '푸른눈제비오리'는 인도, 인도차이나반도, 동남아시아, 필리핀에 분포하는 철새로 2006년 군산에서 구조되어 박제 처리된 국내 유일한 표본으로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관람포인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군산=김판근기자

## 군산시, 음식관광 활성화 특화음식 지정업소 모집

군산시가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군산만의 특색 있는 대표음식을 개발하고 개발된 메뉴를 취급할 수 있는 특화음식 지정업소 모집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27일까지 접수받겠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지난 8월 군산의 대표음식 개발을 위해 군장대학교 김종성 호텔외식조리과 교수와 개발 용역을 체결하고 연구개발에 나선 바 있다.

이에 시에서는 앞으로 개발된 메뉴를 대표음식으로 취급하고자 하는 일반음식점 중 식자료를 취급하는 업소의 영업자 또는 창업예정자를 모집한다.

시 특화음식 지정업소 신청을 원하는 영업자는 시청 식품위생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및 군산시외식업지부에 영업자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하면 된다.

시에서는 신청 받은 업소에 대해 음식문화수준, 위생, 서비스평가 및 영업자 마인드 등의 현지평가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산 대표 음식 메뉴 2종 모두를 대표 음식으로 취급하고 이 사업을 3년이상 지속해야 하는 조건 등을 모두 이행하여야 특화음식 지정 업소로 선정될 수 있다.

특화음식 지정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특화 음식 지정업소 표지판 부착 ▲대표음식 개발 음식 표준조리법 기술이전 ▲영업장 및 화장실 등 시설·설비 개선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여 업소의 정보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근기자

## 익산시 모현동, 화재 피해가구에 희망 불씨 전해

익산시 모현동에서 갑작스런 화재로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민간단체, 봉사무소 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이 이어져 혼란한 감동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14일 모현동 군악로 통장 오 모(54)씨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 해당 주민은 주택과 재산이 모두 전소되는 피해를 입고 시름을 앓고 있었다.

이에 정현을 익산시장은 즉시 현장을 방문 실의에 빠진 피해자를 위로하고 관련기관에 연락하여 이불세트 등 침구

류, 생필품, 의약품 등 고루 갖춘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등 피해복구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모현동봉장협의회에서도 딱한 사정을 알고 100만원의 성금을 모아 전달했다.

모현동 관계자는 "시 발전을 위해 기여한 화재 피해자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어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 적십자회비, 지금 희망을 심어주세요.

- 금융기관
- 가상계좌
- 인터넷
- 전화
- 편의점
- 신용카드 포인트
-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http://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